'성탄 나무'(Christmas Tree)

배 기 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설레고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면, 그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림과 성탄 시기에 우리의 기쁜 마음을 더해 주는 '성탄 나무' (Christmas Tre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왜 성탄 나무를 만들고 장식하나요?

나무를 장식하는 풍습은 성탄을 기념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이전인 고대인들의 관습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고대에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동짓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푸른 상록수 가지를 집에다가 장식했습니다. 춥기도 하고 또 어두운 분위기인 한 겨울에 푸른 나뭇가지를 장식함으로써 다가올 봄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16세기 즈음부터 이러한 관습은 독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성탄절에 성탄 나무를 장식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1700년대 후반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독일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에 성탄 나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영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던 독일인 알버트에 의해서 영국 왕실에 최초로 성탄 나무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영국 왕실에 세워진 성탄 나무를 따라서 너도나도 자신들의 집에 성탄 나무를 장식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성탄 나무는 단순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림 · 고성진_요셉

성탄 나무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 나무로는 주로 전나무나 소나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 나무를 꾸밀 때는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입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눈이 소복이 쌓인 밤거리를 걸어 본 적이 있나요? 하 눈이 내린 밤거리는 참으로 분위기 있고, 또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밤인데도 전혀 어둡지 않죠. 온 땅과 나무를 뒤덮고 있는 눈들이 빛을 은은히 반사하기 때문인데요, 이 광경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나무를 솜뭉치나 꼬마전구로 장식하면서 눈을 표현하고 있죠.

한편 성탄 나무의 광채와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밝게 기 위해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빛이신 그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성탄 나무를 장식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잘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배기환_프란치스코
서울대교구 신부. 2007년 서품. 현재 방배4동 보좌신부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다.